



[뉴스] 고승범 위원장 빅테크 '금소법' 적용 "금융안정 차원 꼭 필요" 02



Economy

코스피	3130.09 (-23.31)	코스닥	1039.43 (-3.36)
금리 (미국 3년)	1.498 (+0.006)	환율 (원/달러)	1171.80 (+1.30) (16일)

m-커버스토리 2021 코로나 팬데믹 - 네 나라, 네 도시 이야기

중소상공인 희생으로 버티는 한국 독·러·스웨덴은 이미 '위드 코로나'

해외국가 백신 접종 확산 속 코로나19 이전 일상 회복 중 국내선 고강도 방역체계로 중소기업 버텨야 할까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시민들이 '런던 명물' 근위병 교대식을 구경하고 있다. 근위병 교대식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취소됐다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이번 주 중 7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를 높여 10월 말까지 2차 접종률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0월 말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법을 바꾸면서까지 주기로 한 손실보상금은 올해 1조263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부터 문을 열고 닫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첨예한 논쟁 끝에 올해 7월부터 입은 피해액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역정책은 가뜰이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더욱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L4>

이젠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한다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9~10월이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주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도 있다. 자칫 '거리두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몰려온다.

변이 바이러스 출몰 등 전세계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빠진 2021년 가을, 네 나라 속

네 도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었다. 길거리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을 오히려 의아하게 쳐다볼 정도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률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 권고'는 6월 말부터 해제됐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박물관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등도 6월 이후 차례

로 문을 열면서 스웨덴은 지난 여름휴가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남편, 아들과 함께 넘어가 생활하고 있는 박소현씨의 말이다.

스웨덴에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박씨는 현지 의료시스템이 불안하기도 했고, 자칫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최소한의 동선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그래도 한국처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이방인의 낯선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현지인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다. 한창 뛰어놀 아이는 더욱 그랬다.

스웨덴은 하루 확진자가 7000명대를 치솟았던 올해 1월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정도로 그동안 느슨한 방역을 해 왔다. 그러다 6월부터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아도 됐다. 음식점과 술집은 언제 코로나가 있었냐는 듯 사람들로 북적였다.

<4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제6회 물류&e모빌리티 포럼'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물류·모빌리티 융합 가속화

2년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비대면 소비입니다. 가공·신선식품 등 먹거리부터 가구나 전자제품 등 내구재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온라인으로 주문해 가정, 사무실에서 받는 비대면 경제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전 월평균 12조~13조원 수준에 그쳤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최근엔 15조~16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4분기 25.6%에서 올해 2·4분기엔 28.1%까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더욱 앞당기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유통의 경계선은 점점 사라지고, 이를 잇는 물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물류와 모빌리티의 융합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산업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간 제조·유통·물류 분야 협업을 통한 시너지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이같은 시너지 창출 모델이 더욱 필요합니다.

'제6회 물류&e모빌리티 포럼'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물류
 - 일 시 : 2021년 9월28일(화) 14:00~17:00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3층 페럼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후 원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통합물류협회
 - 기조강연 :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前한국경영학회 회장)
 - 강연 1~3 : CJ대한통운 이커머스사업팀 김종신 부장,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김요섭 로봇사업실장, 쿠팡 물류 서비스디자인 총괄 박지원 전무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 온라인 접속 : 신청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개별 공지
 - 문 의 : 제6회 물류&e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SK이노, 배터리·석유개발 신설법인 내달 1일 출범

주총서 분할계획서 80%로 가결 외국인·기관 대부분 분사 동의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석유개발 사업 분사를 확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석유개발 사업부의 물적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 승인으로 신설법인 'SK 배터리주식회사(가칭)'와 'SK이앤 피주식회사(가칭)'는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배터리·석유개발 분사 승인 안건은 80.2%의 찬성률로 통과

됐다. 또 ▲지배구조현장 신설 ▲이사회 내 위원회 명칭 변경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일부 정관 개정 안건도 97.9% 찬성으로 통과됐다.

지분 8.05%를 가진 국민연금이 분사에 반대하고 일부 개인투자자도 주주가치 훼손을 주장하면서 한때 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외국인·기관(26% 이상)이 대부분 분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이들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게 된다.

배터리 신설법인인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BaaS(Battery as a Service),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을, 석유개발 신설법인인 석유개발 생산·탐사 사업,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을 각각 수행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분사 결정은 새로운 주력 사업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한편, 더 큰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함께 제고하면서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주총 승인으로 SK이

노베이션 파이낸셜스토리의 핵심인 '카본에서 그린' 혁신 전략의 추진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1일 '스토리데이'에서 탄소 중심 사업 구조를 그린 중심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파이낸셜스토리'를 공개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배터리 사업과 석유개발(E&P) 사업의 독립경영을 통한 각 사업별 전문성 확보, 의사결정 속도 제고 및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을 분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성은 기자 ysw@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범여권 "尹 '손발노동' 발언, 육체노동 폄하" 한목소리 질타 /사진 뉴시스
-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작년 여성 고위공무원 8.5%... 장애인 고용률 법정기준 ↑
- ▲ 한미, 대북 대응 관련 국장급·북핵차석 대북 협의



- ▲ 與 위드코로나 첫 회의... "10월 말 거리두기 완화 정부에 제안" /사진 뉴시스
- ▲ 靑, 김여정 비판 담화에 대응 자제... "언급하지 않겠다"